AI 20년 연구한 뇌과학자가 챗GPT 쓰는 법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감상문

컴퓨터공학과 202035243 지성현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경쟁자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할 수 있다” 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여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가 이야기 하기를 현재 많은 사람들이 Ai를 이용하는 방식인 단순한 검색 혹은 대화 상대 정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Ai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극히 일부만을 활용하는 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정도의 역할 만으로 10년 안에 인간 사이의 대화가 99퍼센트 이상 사라질 전망이라며 현재 Ai가 삶의 비중을 차지해 가는 속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결국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인간의 삶의 비중은 점점 오를 것이므로 Ai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경험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하였다. Ai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 Ai로 단편영화 제작. 위 세가지를 직접 수행해보며 실패를 통한 경험을 통해 Ai를 바라보는 직관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시청하며 현재 Ai 인공지능의 발전을 그저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의 삶에 다가올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일상생활 및 업무에 적용시킬 방향을 탐색해야 함을 생각하게 하였으며 그저 대화 및 검색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교수님이 제안하신 세 가지 포인트들을 실행해보며 앞으로의 Ai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다.